

# 인간다움에 대해서

## -유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성현창

### 1. 들어가는 글

공자의 “도道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넓힌다”<sup>1)</sup>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는 인도人道의 실현을 위한 인간학이며, 인간다운 인간화를 지향한다. 이런 유교에서 오래전부터 인간을 이해하는 중심적이며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인仁이다. 공자는 인을 사람의 본질로 삼는데, 그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愛人). 더욱 인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天心)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 인(=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비로소 인간이요, 우주 혹은 세계 안에서 자기의 고유한 지위를 확보한다. 따라서 유교의 인간 중심의 인간관에서 인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의 구명뿐만 아니라 자기실현 및 자기 구현과도 직결된다. 공자는 인을 때로는 서책으로 풀어 설명하기도 한다. 서책자는 그 어원상 같은(如) 마음(心)에서 기원한다. 다시 말하면 서는 남의 이익을 나의 이익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공정한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것은 인이 발현하는 장場이 바로 마음임을 시사한다.

사서四書, 즉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은 유학의 경서經書로서 유학의 바이블이다. 경서는 각각의 구체적인 장면에 입각한 성인의 발언을 담고 있으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注』는 중국에서 관료 선발 시험에서 모든 응시자들이 따라야 할 정통 해석으로, 1313년부터 1907년까지 과거시험의 필수과목이었다. 과거에서 『사서집주』를 채택한 이유는 관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이 사서를 통해 배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맹자의 성선설을 지지로 삼는 유교는 인간 존재의 의의를 긍정하고 인간을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향상시키려는 인문정신을 베이스로 한다. 이 인문정신은 바로 모든 인간은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인가학론聖人可學論과 상통하는데, 이를 표창한 도학의 집대성자 주희는 그 중심부에 마음의 문제를 두었다.

그런데 마음은 기독교에서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sup>2)</sup>처럼 마음이 생명의 근원임을 천명했고,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sup>3)</sup>고 권면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피조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실현과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관계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실체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이며, 예수 그리스도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agape)이심이라”<sup>4)</sup>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사랑이다. 따라서 마음은 기독교의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의 틀을 짜는 장場이 된다.

창조(creation), 타락(fall), 구속(redemption)의 세 원리로 성경을 숙고하면서 세계를 포괄적으로 조망하

1) 『論語』, 「衛靈公」, 人能弘道, 非道弘人.

2) 『성경』, 「잠언」4장 23절.

3) 『성경』, 「로마서」12장 2절.

4) 『성경』, 「요한일서」4장 8절.

려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 계기로 구성되어 있다. 즉 창조의 선한 마음, 아담(인간)의 죄의 결과로서의 타락한 마음,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마음 등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창조의 선한 인간, 타락에 따른 악한 인간, 구속에 의한 거듭난 인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더욱 구속을 기점으로 인간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sup>5)</sup>처럼 하나님나라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변혁하는 삶의 여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본고는 인간다운 인간화를 자신의 ‘안으로부터의 깨달음’(enlightenment from within)으로 실현하려는 유교와 하나님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구원’(salvation from without)에서 찾는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인간의 보편성과 그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추출하고, 유교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가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 2. 유교적 인간다움-하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

### 2-1. 하늘의 마음

유교의 중요한 경전의 하나인 『역경易經』은 중국 정신의 최초의 결정체로 간주되어 중국 사상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송대의 사대부들은 『역경』에서 자신의 존재의식과 행동원리를 찾고자 했다. 그래서 서양의 중국학자들은 서양의 기계론적 사고와 다른 중국의 유기체적 사고의 근원을 『역경』에 보이는 유기체적 우주 발생론에서 찾는다.<sup>6)</sup>

『역경』 「계사전繫辭傳」의 “한 번 음陰하고 한 번 양陽하는 것 그것을 도道라고 하고 그것을 계승한 것은 선善이며 그것을 이룬 것은 성性이다”<sup>7)</sup>는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과정과 그것이 지향하는 운동이 선함을 암시한다. 주희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한다”를 태극太極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주희는 “그것을 계승한 것은 선이다”를 음양(氣)과 오행(質)의 상호작용이 생생하여 그침이 없는 양상으로 선을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한다.<sup>8)</sup> 또한 주희는 “그것을 이룬 것은 성이다”를 천지가 생성한 인간과 사물 각각이 성명性命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간주하고, 성을 마음의 리理라 하고 인의예지를 그 내용으로 삼는다.<sup>9)</sup> 그래서 주희에 의하면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하고 그것을 계승한 것은 선이며 그것을 이룬 것은 성이다”의 과정은 통틀어서 순수지선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주희가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오행으로 음양오행에서 만물이라는 도식으로 만물의 생성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존재의 구조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극은 가장 좋은 지선至善의 도리일 뿐이다. 사람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물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이 있다. 태극이란 천지만물의 모든 선의 가장 좋은 모범적인 덕이다.”<sup>10)</sup> 이 말은 태

5)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

6) 최영진, 「정신과 물질에 관한 易學的 理解」, 『철학』 35, 1991, 1~21쪽은 『역경』에 보이는 天地之心과 待對關係를 중심으로 유교의 세계관이 정신과 물질,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의 근원적 동일성을 기저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 연장선의 연구가 최영진, 「退·栗의 理氣觀과 世界認識」, 『大東文化研究』 28, 1993, 271~280쪽이다.

7) 『易經』 「繫辭傳」,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 成之者性也.

8) 『朱子語類』 권74, 一陰一陽之謂道, 太極也. 繼之者善, 生生不已之意, 屬陽. 成之者性, 各正性命之意, 屬陰. 通書第一章可見, 如說純粹至善, 是統言道理.

9) 『朱子語類』 권74, 成之者性, 是吾心之理, 所以爲仁義禮智是也.

10) 『朱子語類』 권94, 太極只是箇極好至善底道理. 人人有一太極, 物物有一太極. 周子所謂太極, 是天地人物萬善至好底表德.

극이 모든 사물의 존재원리이며 최고표준임을 가리키고, 이 태극을 얻어 생성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리는 각 사물이 가장 완전한 상태를 발현하여 드러내는 표준임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희에 의하면 태극(=리, 성)은 우주 만물의 어느 곳에서나 모두 동질한 가치를 가진다. 그것은 월인만천月印萬川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다.

본래 하나의 태극만이 있는데 그것이 만물의 각각에 품수되어 더욱 각각의 만물은 다 하나의 태극을 구비한다. 마치 하늘에 달이 오직 하나 있는 것과 같다. 강과 호수는 흩어져 있지만 달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달이 이미 나누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주희가 태극을 초월적 존재인 동시에 내재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태극이 내재화되어 나타난 것이 성이고, 구체적으로는 인의예지 사덕이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의 근거가 태극에 있다. 이러한 태극의 내재화는 천명이 천의 내재화로써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용中庸』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이 명(天命)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sup>11)</sup>

하늘이 명한 성은 유학에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희는 다음과 같이 하늘이 명한 인간의 본성이 하늘의 이치이고 공공公共의 원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간의 본성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확립하고 있다.

성은 인간이 부여받은 천리天理이며 천도天道는 천리자연의 본체이니, 그 실상은 리일一理이다.<sup>12)</sup>

성은 다만 리理이며 만리萬理의 총명總名이다. 이 리는 또한 천지 사이의 공공公共의 이치이고 인간은 그것을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다.<sup>13)</sup>

천의 내재화로써 “천명은 임금의 명령과 같고, 본성은 임금한테서 직무를 맡는 것과 같다”<sup>14)</sup>처럼 주희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단순한 원리와 기준뿐만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힘을 함축한 능동적이고 내발적인 것이다. 이는 서양 고대의 자연법 사상가인 키케로의 “진정한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명령을 통해 의무를 지우고 금지를 통해 악을 피하게 하는 그러한 올바른 이성이다.”<sup>15)</sup>를 연상케 한다.

한편 주희는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시루로 쌀을 찌는 것에 비유한다.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부터 더운 불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끓어오르다가 다시 그 증기가 끓어 내려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같이 계속 끓는 사이에 쌀이 부드럽게 찌진다. 천지는 그 사이에 수많은 생기生氣를 품고 있으나 생기가 빠져나갈 출구가 없다. 기가 그 가운데에서 한 번 소용돌이치면 한 번 사물을 낳는다. 천지는 이것 이외에 하는 일이 없고 다만 만물을 생성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맷돌이 곡물을 빻은 것과 같다.<sup>16)</sup>

11) 『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12) 『論語集註』, 「公治長」, 性者, 人所受之天理, 天道者, 天理自然之本體, 其實一理也.

13) 『朱子語類』 권5, 性只是理, 萬理之總名, 此理亦只是天地之間公共之理, 稟得來便爲我所有.

14) 『朱子語類』 권4, 天命, 如君之命令, 性, 如受職於君.

15) 마르쿠스 튀리우스 키케로 지음, 김창성 옮김, 『국가론』, 한길사, 2007, 233쪽과 조천수, 「키케로의 自然法思想」, 『安岩法學』8, 1998, 참조.

생기란 말 그대로 생생한 기로, 천지의 끊임없는 생생한 흐름은 사계절의 변천에 해당된다. 봄은 생기가 일어나는 때이고, 이 생기가 활발하게 운동하면 만물이 번성하는 여름이 되고, 생기가 수렴收斂해 감에 따라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되면 생기는 사라져 간다. 그러나 생기가 사라짐과 동시에 또 새로운 생기가 태동하기 시작한다. 주희는 천지 사이에 충만한 생기를 측은惻隱이라는 인간의 감성으로 표현한다.<sup>17)</sup> 측은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것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이 용솟아 나오는 마음으로, 인仁이 발현된 현상이다. 측은해 하는 마음은 바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이며, 그것은 『맹자』 「공손축상」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거기에 주희는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생성된 만물 모두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마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불인지심이 있는 것이다.”<sup>18)</sup>고 주를 달고 있다. 더욱 주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지는 만물창생을 마음으로 삼는다. 사람과 사물이 창생되면 또한 각각 천지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덕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관통하여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한 마디로 집약하여 말하면 인仁이다.<sup>19)</sup>

거룩하신 상제上帝께서 아래 백성을 내리심에 무엇을 주셨는가? 인仁和 의義가 그것이다. 의와 인은 상제의 법칙이니, 이것을 공경하고 받들에 다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라.<sup>20)</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만물은 천지지심天地之心에 의해서 존재하며<sup>21)</sup>, 만물을 생성하는 하늘의 마음(天心)은 바로 인이다. 그리고 유교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인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의무이며 사명이다.

## 2-2. 인(仁)에 대해서

유교의 최고의 덕목인 인을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애인愛人<sup>22)</sup>이라고 정의한다. 애인으로서의 인은 맹자에 의하면 측은지심의 뿌리로서 사덕, 즉 인의예지 가운데 한 덕목이다.

사람마다 모두 남에게 차마 잔혹하게 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을 문득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며,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도 구해주지 않았다는 나쁜 평판을 듣기 싫어서도 아니다. <중략> 측은해 하는 마음은 인의 단서이며 수오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이 단서이며 시비하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sup>23)</sup>

16) 『朱子語類』 권53, 天地以生物爲心. 譬如甄蒸飯, 氣從下面滾到上面, 又滾下, 只管在裏面滾, 便蒸得熟. 天地只是包許多氣在這裏無出處, 滾一番, 便生一番物. 他別無勾當, 只是生物, 不似人便有許多應接, 所謂爲心者, 豈是切然去做, 如云天命之, 豈諄諄然命之也. 但如磨子相似, 只管磨出這物事.

17) 『朱子語類』 권53, 中間虛包許多生氣, 自是惻隱.

18) 『孟子集注』, 「公孫丑章句上」, 天地以生物爲心, 而所生之物因各得夫天地生物之心以爲心, 所以人皆有不忍人之心也.

19) 『朱子文集』 권67, 「雜著 仁說」, 天地以生物爲心者也. 而人物之生 又各得夫天地之心以爲心者也. 故語心之德, 雖其總攝貫通, 無所不備. 然一言以蔽之, 則曰仁而已矣.

20) 『朱子文集』 권85, 「尊德性齋銘」, 維皇上帝降此下民, 何以予之. 曰義與仁. 維義與仁維帝之則, 欽斯承斯維懼弗克.

21) 『朱子語類』 권105, 天地之心, 只是皆生, 凡生皆是生, 方有此物. 如草木之萌芽, 枝葉條幹, 皆是生方有之, 人物所以生生不窮者, 以其生也.

22) 『論語』, 「子路」, 樊遲問仁. 子曰, 愛人也.

23) 『孟子』, 「公孫丑上」,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구할 때 발현된 마음은 어떠한 상태이었을까. 이를 위해서 두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로위로 추락한 일본인 취객을 구조하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 들어간 이수현 씨의 사건은 2001년 일본열도를 감동의 물결로 수놓았다. 이수현 씨가 사망한 도쿄(東京) 신오쿠보(新大久保) 역에서 2006년 5월 22일에는 이수현 씨가 다녔던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신현구 씨가 이번에는 일본인 여대생을 구조했다. 한편 2005년 서울의 어느 한 지하철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한 김대현 군은 착지하자마자 두 번 만에 갔다 아이를 안고 두 번 만에 돌아오는 초인적인 모습을 보인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 0.3초의 기적'에서 방영된 그들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현구 : 본 순간 그냥 몸이 먼저 갔습니다. 무대에서 그 배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옆에는 까맣고 그 사람만 보였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무 것도 안 들어 있는 라면박스와 같았습니다.

질문 : 주의 사람들이 박수쳐 줄 것인가 혹은 칭찬해 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까?

김대현 : 아니요. 다른 곳은 안 보이고 제 발 디딜 곳과 어린아이가 있는 곳만 보였어요. 엄청나게 가벼웠어요.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구할 때나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조할 때 발현된 마음의 상태는 동일할 것이다. 그 마음은 무조건적이고 아무런 사사로운 목적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즉 공평무사한 상태이었을 것이다. 그 마음의 상태는 주일무적主一無適(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고도의 몰입상태)으로 표현되는 경敬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명 지하철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행위는 의식이 집중하여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찰나적인 고도의 집중력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현상은 경敬을 유지하여 마음이 조금도 굽힘이 없게 되어 털끝만큼의 사의私意도 없이 인이 자연히 발현되어 나타난<sup>24)</sup> 역동적인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마음의 동태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그래서 주회는 인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도량이 먼저 준설되어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먼저 마음이 공공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은 비유하면 물과 같고 공공은 비유하면 도랑과 같아서 물을 유통시키려면 먼저 도랑을 준설해야만 하고 그 이후에 물이 비로소 흘러나가는 것이다.<sup>26)</sup>

공은 사리사욕을 의미하는 사私와 대비되어 사사로움이 전혀 없는 공평무사한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사의 상태, 즉 사사로움이 있다면 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저 인이란 단지 사랑의 이치로서 사람 모두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공公하지 않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경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sup>27)</sup>

주회는 공의 보편성을 사심私心으로서의 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4) 『朱子語類』권42, 程子云, 敬以直內, 義以方外, 仁也. ……曰, 此言敬以內直, 卽無一毫私欲, 仁自在其中爾.

25) 『朱子語類』권53, 惻隱本是說愛, 愛則是說仁. 如見孺子將入井而救之, 此心只是愛這孺子. 惻隱元在這心裏面, 被外面事觸起.

26) 『朱子語類』권41, 且仁譬之水, 公則譬之溝渠, 要流通此水, 須開浚溝渠, 然後水方流行也.

27) 『朱子文集』권32, 「又論仁說」, 蓋仁只是愛之理, 人皆有之. 然人或不公, 則於其所當愛者, 又有所不愛.

공의 경우는 하나이고 사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사람의 마음이 얼굴과 같이 천차만별한 것”은 사심 때문이다.<sup>28)</sup>

천하의 정대正大한 도리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공이고 자신의 사의로 처리하면 사이다.<sup>29)</sup>

또한 주희는 공사公私를 이용해서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을 준변한다.

하나의 일에는 반드시 두 면이 있는데 올바른 것은 천리의 공이며 틀린 것은 인욕의 사이다.<sup>30)</sup>

천리와 인욕은 대대待對관계를 가지고 소장消長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중립의 입장이 없는 흑백논리로 나타난다.<sup>31)</sup> 다시 말하면 천리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사의가 있다면 그것은 천리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천리와 인욕의 전쟁터인지도 모른다.<sup>32)</sup>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생생하게 활력(活)이 있는 상태로 항상 있길 필요로 한다.<sup>33)</sup> 주희는 “활은 천리며 사死는 인욕”<sup>34)</sup>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배타적인 사욕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의 활력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적 삶은 천리와 인욕의 긴장관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를 비롯한 도학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등의 인간의 감각기관이 당연히 욕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탐심이 생기면 그것은 부정해야 하는 사욕으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천리天理라는 하나의 규범에서 단 한 순간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부정되고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공자의 예제자 안회가 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공자가 대답한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자.

주희는 “극기”의 “기”를 인물에 대한 말이 아니라 공과 대립되는 사로 파악하고<sup>35)</sup> 예禮를 천리의 절문節文<sup>36)</sup>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희는 “극기복례위인”을 사욕을 제거한 후에 예로 충만된 상태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서야 비로소 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sup>37)</sup> 여기서 공사를 이용해서 “극기복례위인”을 간략히 표현하면 공승사公勝私이면 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희는 공승사를 나와 타자 그리고 나와 사물이 하나 됨을 알고 공도가 자연히 유행되는 상태라고 한다.

이것(克己復禮)의 의미는 조금의 사의도 없어지자 바로 사람과 내가 하나이고 사물과 내가 하나임을 깨달아서 공도가 자연히 유행된다는 것이다.<sup>38)</sup>

주희는 “도란 물아物我が 공공하는 자연의 리”<sup>39)</sup>라고 하여 사물에 존재하는 리와 그 리에 따라 대응하여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치된 상태가 도라고 한다. 그래서 주희는 리를 천하공공의 리로

28) 『二程遺書』 권15, 伊川先生曰, 公則一, 私則萬殊. 人心不同如面, 只是私心.

29) 『朱子語類』 권13, 將天下正大底道理去處置事, 便公, 以自家私意去處之, 便私.

30) 『朱子語類』 권13, 事有兩端, 是底即天理之公, 非底乃人欲之私.

31) 『朱子語類』 권13, 人只有箇天理人欲, 此勝則彼退, 彼勝則此退, 無中立不進退之理.

32) 『朱子語類』 권140, 人心之動, 變態不一. 所謂五分天理, 五分人欲者, 特以其善惡交戰而言爾. 有先發於天理者, 有先發於人欲者, 蓋不可以一端盡也.

33) 『二程遺書』 권5, 人心常要活, 則周流無窮, 而不滯於一隅.

34) 『朱子語類』 권97, 心要活. 活是生活之活, 對著死說. 活是天理, 死是人欲.

35) 『朱子語類』 권41, 克己之己, 未是對人物言, 只是對公字說, 猶曰私耳.

36) 『論語集注』, 「學而篇」, 禮者, 天理之節文.

37) 『朱子語類』 권41, 惟是克去己私了, 到這裏恰好著精細底工夫, 故必又復禮, 方是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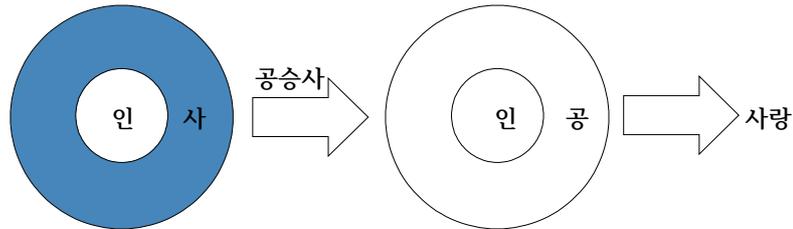
38) 『朱子語類』 권41, 此意思纔無私意間隔, 便自見得人與己一, 物與己一, 公道自流行.

39) 『朱子語類』 권60, 道則是物我公共自然之理, 義則吾心之能斷制者, 所用以處此理者也.

사람 모두가 똑같이(一般) 처음부터 물아의 구별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실감적인 『맹자』의 “적자입정(赤子入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sup>40)</sup>

여기서 “극기복례(居仁)위인”은 공에서 인으로라는 과정을 연상케 한다. 주희는 “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할 수 있고”<sup>41)</sup>, “공이 없다면 인을 실천할 수 없다”<sup>42)</sup>고 한다. 더욱 “오직 인한 후에야 천지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sup>43)</sup>고 한다.

결국 사랑은 공→인→애라는 과정을 밟는데, 이 과정을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희는 인을 기름에 비유하면서 조금의 불순물도 없고서야 비로소 기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거기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불순한 기름이 되는 것처럼, 천리혼연(天理渾然)한 인에 추호의 사욕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인이 아니다<sup>44)</sup>라고 한다. 더욱 흰 색깔은 100%가 다 희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묵점(墨點)을 하나 더하면 하얗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sup>45)</sup> 인은 100% 공평무사한 마음에서만 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이 사욕이 없는 공평무사한 상태를 유지하여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희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포함한 사단(四端)을 불선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지선(純粹至善)이고 인간에게 당위적인 성(性)<sup>46)</sup>이 발현하여 나타난 도덕적 감정이라고 한다. 또한 “다만 측은한 마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동(動)할 수 있다. 만약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동(動)할 수 없다. 이것(측은지심)이 먼저 동한 후에야 비로소 수오, 공경, 시비가 있는 것이다.”<sup>47)</sup>이라는 점에서 모든 감정의 기저에는 인, 즉 생동의 이치로서 역동적인 사랑의 이치가 터를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愛人, 측은지심)은 모든 덕을 포괄하고 다른 덕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달리 말하면 사랑이 없는 예의, 사랑이 없는 배려,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판단,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공경 등은 마치 빈 수레와 같이 가식적인 행위가 된다. 이는 인을 광의의 인과 협의의 인으로 나누는 주희의 견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광의의 인은 인의예지의 교집합으로 사덕의 공통분모가 되고, 협의의 인은 마음이 외계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사랑 자애 등으로 인의예지의 개별적 현현의 분모항이 된다.

40) 『朱子語類』 권18, 這理是天下公共之理, 人人都一般初無物我之分. …… 如赤子入井皆有怵惕, 知得人有此心, 便知自家亦有此心, 更不消比并自知.

41) 『朱子語類』 권6, 公了方能仁, 私便不能仁.

42) 『朱子語類』 권6, 無公, 則仁行不得.

43) 『朱子語類』 권6, 惟仁, 然後與天地萬物爲一體.

44) 『朱子語類』 권28, 仁, 譬如一盆油一般, 無些子夾雜, 方喚做油. 一點水落在裏面, 便不純是油了. 渾然天理便是仁, 有一毫私欲便不是仁了.

45) 『朱子語類』 권28, 仁如白, 不仁如黑. 白須是十分全白, 方謂之白. 纔是一點墨點破, 便不得白了.

46) 『孟子集注』, 「告子上」, 性即天理, 未有不善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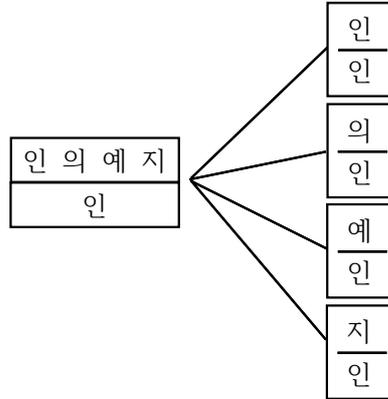
『朱子語類』 권5, 性則純是善底.

『中庸或問』, 天命之謂性, 純粹至善而具於人心者.

『朱子語類』 권5, 性是合當底.

47) 『朱子語類』 권53, 惟是有惻隱之心, 方會動. 若無惻隱之心, 不會動. 惟是先動了, 方始有羞惡, 方始有恭敬, 方始有是非. 動處便是惻隱. 若不會動, 不成人.

광의와 협의의 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랑의 감정이 동반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결국, 하늘의 마음(天心)은 인이며, 그것은 사랑이다. 이 하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내재화되어서 사랑을 세상에 흘러 보내는 것이 유교적 삶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맹자는 인의 실천을 가족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만물로 확장해 나갈 것을 내세운다.<sup>48)</sup> 이는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추기급인推己及人한다는 충서忠恕의 도이다. 충서는 증자가 공자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요약한 말로, 충은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열심히 다하는 것으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서는 같을 여(如)+마음 심(心)으로 구성되어 남의 마음과 같다는 자의字意처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sup>49)</sup>로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정신이다. 달리 말하면 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의 황금률인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sup>50)</sup>가 연상된다. 더욱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sup>51)</sup>,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sup>52)</sup>가 생각한다.

### 3. 기독교적 인간다움-하나님나라를 실천하는 사람-

#### 3-1. 창조의 선한 사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성경의 존재와 권위는 절대적이다. 성경의 첫 장을 장식하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전체의 유일한 근원임을 언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 주는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이다.<sup>53)</sup> 예를 들면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sup>54)</sup>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가 모두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상태는 부패되거나 오염되었거나 죄가 있지 아니하고<sup>55)</sup> 도덕적 중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48) 『孟子』, 「盡心上」,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49) 『論語』, 「顏淵」, 己所不欲, 勿施於人.

50) 『성경』, 「마태복음」7장 12절.

51) 『성경』, 「레위기」19장 18절, 「신명기」6장 5절.

52)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

53) 「창세기」 1장, 4절·10절·12절·18절·21절·25절에는 하나님이 창조 일주간 동안 매일매일 지으신 것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it was good)”라고 하고, 특히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it was very good)”<sup>(31절)</sup>하여 흠족해 한다.

54) 『성경』, 「창세기」1장 31절.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포함한 물질세계를 본래 선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는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관한 법칙의 근원이 된다.<sup>56)</sup>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 물질세계는 플라톤이 가리키듯이 참된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오류와 환상의 영역이 아니다.

알버트 윌터스는 선한 창조 질서를 구조(structure)라는 용어로 규정한다. 구조란 “창조의 질서 즉 어떤 사물의 불변적 창조 구조 혹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키”<sup>57)</sup>는 것으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본체나 본질, 본성 등으로 일컫는 실체를 지칭한다.”<sup>58)</sup> 이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마련된 선한 창조 질서가 모든 피조물에게 고유한 본성과 정체성으로 각각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다 여화와의 것이로다”<sup>59)</sup>라는 시편 기자의 말은 그것을 증좌하기에 충분하다.

창조시의 인간은 선한 창조 질서를 예표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sup>60)</sup>

형상(image)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켈렘은 ‘짜르다’, ‘베다’라는 동사로부터 유래된 단어로,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대로 조각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이다.<sup>61)</sup>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상은 인간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sup>62)</sup>임을 시사한다. 즉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의 사람의 상태는 부패되거나 오염되었거나 죄가 있지 아니하였다”<sup>63)</sup>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어린아이와 같은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의식 있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성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일명 문화명령으로 불리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인간)을 대리자로 세워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를 수행하는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한 사실로 예측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한 창세기의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었을까.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이는 마음의 할례<sup>64)</sup>의 의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란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하고 갱신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sup>65)</sup>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갱

55) 안토니 A. 후크마 지음, 류호준 옮김, 『개혁주의 인간론』,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29쪽.

56) 낸시 피어시 지음, 홍병룡 옮김, 『완전한 진리』, 복 있는 사람, 2006, 91쪽.

57) 알버트 윌터스 지음, 양성만 옮김, 『창조타락구조』, Ivp, 2007, 101쪽.

58) 알버트 윌터스 지음, 양성만 옮김, 같은 책, 101쪽.

59) 『성경』, 「시편」24편 1절.

60) 『성경』, 「창세기」1장 27~28절.

61) 안토니 A. 후크마 지음, 류호준 옮김, 앞의 책, 27쪽.

62) 안토니 A. 후크마 지음, 류호준 옮김, 같은 책, 28쪽.

63) 안토니 A. 후크마 지음, 류호준 옮김, 같은 책, 29쪽.

64) 『성경』, 「신명기」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이외에도 마음의 할례는 「레위기」 26장 41절, 「예레미야」 4장 4절과 9장 25절~26 등에 보인다.

65) 권연경, 「마음의 할례와 행위」, 『신약연구』7권, 2008, 311~340쪽과 전정진, 「이스라엘의 회개와 갱신에 나타난

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상반되는 마음이 창세기 “그들”의 마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이는 마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은 창조주의 선한 질서 안에서 모든 상호관계성이 자리를 잡았을 때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sup>66)</sup> 그럼 죄 된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죄 된 인간의 마음은 미혹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 패역한 마음, 완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sup>67)</sup> 특히 미혹되는 마음은 음란의 죄와 반역의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적 변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일컫는다. 그리고 마음은, 놀람, 두려움, 근심, 걱정, 즐거움, 기쁨, 분노, 절망 등의 감정의 기반이기도 하다.<sup>68)</sup>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윤리적인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감정을 새롭게 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마음은 인지<sup>69)</sup>와 기억<sup>70)</sup> 그리로 지혜의 좌소로서 지성의 중심<sup>71)</sup>이기도 하여, 마음의 할례는 사고체계의 변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되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sup>72)</sup>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sup>73)</sup>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그들”은 윤리적으로 죄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sup>74)</sup>처럼 하나님이 마음의 반석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신뢰는 마음이 영성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5)</sup> 따라서 마음의 할례는 질서화된 감정의 표출과 사고체계의 전환 그리고 윤리적이고 영성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창세기의 “그들”이 겸손한 마음, 온화한 마음, 진실한 마음, 청결한 마음 등을 유지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인간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서 표출되는 마음과 감정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창세기의 “그들”에게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순종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유보적 명령을 내린 사실 때문이다.<sup>76)</sup> 어쨌든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할례의 역할과 종말론, 『성서학 학술세미나』, 2007, 273~288쪽, 참고.

66) 안근조, 「구약성경 잠언에 나타난 마음교육」, 『기독교교육정보』39, 2013, 375~403쪽.

67) 미혹한 마음은 「민수기」15장 39절, 교만한 마음은 「신명기」8장 14절, 강박한 마음은 「출애굽기」7장 3절, 패역한 마음은 「잠언」6장 14절, 완악한 마음은 「이사야」46장 12절, 사악한 마음은 「시편」101편 4절 등에 수없이 보인다.

68) 감정의 중심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놀람은 「사사기」7장 2절, 근심은 「에스겔」32장 9절, 즐거움은 「사사기」21장 4절, 기쁨은 「출애굽기」4장 14절, 분노는 「욥기」15장 13절, 절망은 「신명기」1장 28절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69) 『성경』, 「에스겔」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70) 『성경』, 「이사야」46장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71) 『성경』, 「열왕기상」10장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9장 23절에도 보인다.

72) 『성경』, 「시편」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73) 『성경』, 「시편」24편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74) 『성경』, 「시편」73편 26절.

75) 안근조, 앞의 논문, 380~382쪽.

76) 안토니 A. 후크마 지음, 류호준 옮김, 같은 책, 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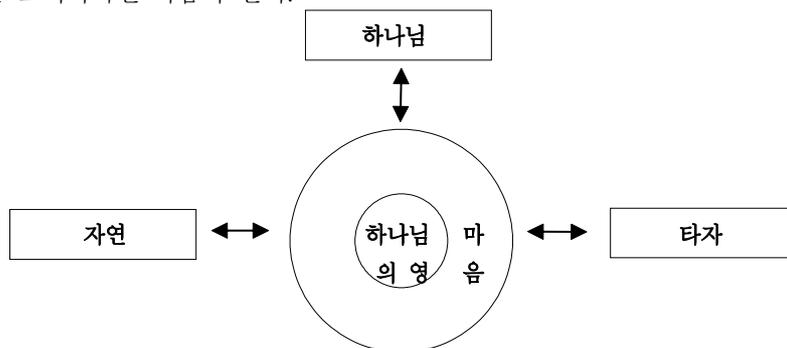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은, 즉 하나님나라가 현현 되었다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도록 깨끗한 상태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sup>77)</sup>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이다.<sup>78)</sup>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으셔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반석임을 깨닫는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이었다.

이런 관계를 유대인 실존주의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를 통해서 추측해보자. 부버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둘로 구분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개의 근원어가 있다. 하나는 일인칭의 ‘나’가 이인칭의 ‘너’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때의 ‘나-너(I-Thou)’라는 근원어이다. ‘나-너’를 건넌으로써 나와 너의 사이에는 틈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는 독립된 나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 인격으로서의 ‘나’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현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타인을 ‘그것’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둘도 없는 ‘너’로서 귀중하게 생각할 때 전혀 새로운 자신의 일면을 발견하게 된다.

‘나-너’에 대한 또 하나의 근원어가 ‘나-그것(I-It)’이다. ‘나-그것’이 건네질 때 열려진 세계는 나와 사물의 세계가 된다. 근대의 자연과학적인 세계 인식은 그런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주의의 모든 것이 ‘그것’=사물이므로 자신은 타자로부터 떨어진 독립된 ‘나’가 된다. 독립된 나는 타자를 포함한 하나님과 자연 모두를 ‘그것’으로 경험하고, ‘그것’으로 이용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나-그것’라는 근원어가 건네질 때 세계는 나에게 이용과 체험의 대상으로 화하여, 그 대상이 자연이든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질락해 버린다.

그래서 부버는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과 자연과 타자를 ‘그것’이 아닌 ‘너’<또 하나의 주체>로서 대면할 때, 세계는 홀연히 그 냉정했던 모습을 바꾸고 스스로의 속마음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인다고 한다. 더욱 부버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너’를 통하여 영원한 ‘너’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의 분깃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sup>79)</sup>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창조의 선한 사람

마음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sup>80)</sup>에서 알 수 있듯

77) 『성경』, 「시편」28편 7절, 여호와께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78) 『성경』, 「시편」82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께의 긍정을 사모하여.

79) 마르틴 부버 지음, 김천재 옮김,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2007, 참고.

80) 『성경』, 「잠언」27장 19절.

이 인간 자신이다. 그래서 정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창세기의 “그들”은 사사로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의지 없이 하나님에게 100% 순종하는 정직한 인격체이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며 형상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미쉬파트(mispat)를 행하여 헤세드(hesed)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sup>81)</sup>처럼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보여 주었다. 헤세드와 쉰다카 그리고 샬롬(salom)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헤세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나라를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을 예측하려고 한다.

### 3-2. 헤세드(hesed)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차별적 동정과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는 성경에서 인애(仁愛)와 인자(仁慈)로 번역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은 인이고, 그 인은 愛人(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헤세드는 구약에 인자로 번역되어 245번이나 나온다. 특히 시편 136편에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 26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 인자만큼은 아니지만 인애의 경우는 창세기 47장 29절을 비롯해서 20번 가까이 보인다.

인애로서의 헤세드에는 앞서 인용한 맹자의 “적자입정孺子入井”에서 보인 “측은지심惻隱之心”이나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보인다. 그래서 기독교의 헤세드를 측은해 하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나타났다.<sup>82)</sup> 그러나 이 연구는 후술하겠지만 헤세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확장되어 유교의 인사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임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 헤세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시혜자인 하나님은 수혜자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 노여워하여 응징하지만 회복을 위해서 대가와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활함을 베푼다.

여호와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sup>83)</sup>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sup>84)</sup>

헤세드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정과 은혜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이스라엘은 시혜자인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며 관계적 사랑이다.

여기서 잠깐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노아는 당시에 가장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sup>85)</sup> 노아가 생존했던 세상은 썩은 대로 썩어서 무법천지이었다. 오직하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겠는가. 이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서 떠난 결과이

81) 『성경』, 「미가」6장 8절.

82) 서명수, 「맹자의 인의(인의)와 구약의 공의(공의)사상 비교」, 『구약논단』17, 2011, 83~96쪽.

83) 『성경』, 「민수기」14장 18절.

84) 『성경』, 「출애굽기」34장 6절.

85) 『성경』, 「창세기」6장 9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노아를 선택했고, 노아는 이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다. 이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진다.<sup>86)</sup> 심지어 하나님의 헤세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한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sup>87)</sup>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아가페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sup>88)</sup>

너희는 원수를 아가페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sup>89)</sup>

결국 무제한적 사랑인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에 의해서 조건 없는 용서로 나타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촉구한다.

여기서 잠시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함축된 유교의 인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촉구하는 기독교의 헤세드의 차이를 논어의 “이직보원以直報怨(올바름으로 원망을 갚는다)”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자.

올바름으로 원망을 갚는다는 것은 칭찬을 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벌을 줄 것에는 벌을 주고, 마땅히 살려야하는 것은 살리고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것은 죽는 것이어서 원망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원망이 그 가운데 더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sup>90)</sup>

즉, 주희에 의하면 “이직보원”은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적인 원망을 단절하려는 사상이다.<sup>91)</sup> 이것은 “어진 사람이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sup>92)</sup>는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논어』의 “이직보원”과 같은 패턴의 표현으로는 『예기』에 보이는 “이원보덕以怨報德(원망으로 덕을 갚는다)”과 『주자어류』에 보이는 “이덕보원以德報怨(덕으로 원망을 갚는다)”과 “이원보원以怨報怨(원망으로 원망을 갚는다)” 등이 있다. 원망으로 원망을 갚는다는 “이원보원”은 복수로 치닫는 보복주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의 원리에는 복수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원래의 피해보다 파괴적인 보복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면에 있다.<sup>93)</sup> 이런 동해보복의 원리는 개인적인 원망을 단절하려는

86) 『성경』, 「마태복음」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87) 『성경』, 「레위기」19장 17~18절.

88) 『성경』, 「마태복음」5장 44절.

89) 『성경』, 「누가복음」6장 27절.

90) 『朱子語類』권44, 以直報怨, 當賞則賞之, 當罰則罰之, 當生則生之, 當死則死之, 怨無與焉. 不說自家與它有怨, 便增損於其間.

91) 『朱子語類』권44, 以直報怨, 則無怨矣. 以德報怨, 亦是私.

92) 『論語』, 「里仁」,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의미가 함축된 “이직보원”에도 적용된다. 한편 주희는 덕으로 원망을 갚는다는 “이덕보원”에 대해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서 타인이 자신에게 원망을 품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덕으로 원망을 갚는다는 것은 스스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면 타인이 자신에게 원망을 사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94)</sup>

그러나 주희는 “이덕보원”을 사사로운 것이며 거짓이며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덕으로 원망을 갚는다는 것은 역시 사사로운 것이다.<sup>95)</sup>

하손이 질문하길, 덕으로 원망을 갚는다는 것은 다만 덕으로 갚아야 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덕으로 원망을 갚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대답하길, 그렇다. 이와 같이 한다면 거짓이고 불성실한 것이다.<sup>96)</sup>

덕으로 원망을 갚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다. …… 예를 들면 사람이 나에게 천금을 준 경우 나는 천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천금을 훔쳤는데 자신이 또 천금을 주는 도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천금을 준다는 것만을 보면 거기에는 경중의 차이가 전혀 없지만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다.<sup>97)</sup>

결국 유교의 입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위선이 된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정을 초월한 것으로 주희의 말처럼 가시적인 행위일 수 있다.

인간의 인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어떻게 가능할까. 마태복음 5장 45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44절을 받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길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에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그러나 키포인트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과 자비가 특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이 자식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용서의 자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아버지로 체험되는 곳이다.<sup>98)</sup>

예수가 비유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본 사마리아인은 그를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가, 심지어 여관주인에게 그가 회복할 때까지 보살펴 주길 부탁하며 비용까지 지불하고 떠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

93) 하워드 제어 지음, 손진 옮김,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orea Anabaptist Press, 2010, 172~173쪽.

94) 『朱子語類』 권44, 以德報怨, 自家能饒人, 則免得人以只管求怨自家.

95) 『朱子語類』 권44, 以德報怨, 亦是私.

96) 『朱子語類』 권24, 賀孫問, 以德報怨, 非獨說道無以報德, 只是以德報怨, 也自不得. 曰, 然. 如此只是僞. 只是不誠.

97) 『朱子語類』 권44, 以德報怨, 不是不好. …… 譬如人以千金與我, 我以千金酬之, 便是當然. 或有人盜我千金, 而吾亦以千金與之, 却是何理. 視與千金者, 更無輕重, 斷然是行不得也.

98) 조정철, 「예수의 원수사랑 계명과 하나님나라 선포-예수의 하나님나라 윤리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세계』41, 2000, 139~140쪽.

천지원수시간이었다.<sup>99)</sup>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도 손양원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이 주희가 말하는 위선이 아님을 반증할 수 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손양원 목사는 누구에게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한센병 환자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다. 손양원 목사의 원자탄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현현이며, 현재적 하나님나라의 실현이다.

따라서 하나님나라를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의 전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며 대가없는 희생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 화해를 지향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는 우리의 에이레네(eirene)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에이레네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sup>100)</sup>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존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하는 기점이 된다, 그러나 새사람이 되는 동시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sup>101)</sup>처럼 하나님나라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예수가 세상의 죄를 속량하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온 이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사르코스(sarkos)”<sup>102)</sup>이며 프쉬키코스(psychikos)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다.<sup>103)</sup>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 사르코스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사르코스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던니.<sup>104)</sup>

이들은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함이니”처럼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구원 이전의 상태로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로 마귀의 본성을 나타내는 존재로,<sup>105)</sup> 세상 신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의 식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그의 죽음과 부

99) 『성경』, 「누가복음」10장 25절~37절.

100) 『성경』, 「에베소서」2장 14절~16절.

101) 『성경』, 「마태복음」5장 48절.

102) 『성경』, 「로마서」8장 5절.

103) 『성경』, 「고린도전서」2장 14절.

104) 『성경』, 「에베소서」2장 2절~3절.

105) 존 칼빈과 헤르만 바빙트 등은 옛사람을 타락한 본성으로 해석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을 옛본성과 새본성으로 동일시하여 그리스도 개인의 영적싸움을 다루는 성화에 포함시키는 반면에, 존 머레이와 안토니 A 후크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중생 후의 상태와 중생 후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안토니 A. 후크마 지음, 류호준 옮김, 『개혁주의 인간론』,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51~60쪽과 안토니 A. 후크마 지음, 류호준 옮김, 『개혁주의 구원론』,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343~353쪽, 참고). 전자의 경우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옛사람과 새사람 관계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와 중첩된다. 본고는 안토니 A 후크마의 견해를 따른다.

활함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사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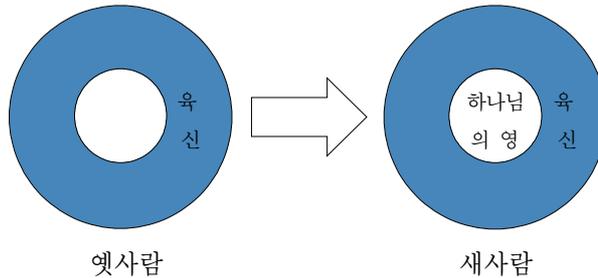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sup>106)</sup>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sup>107)</sup>

구속의 사건으로 옛사람에서 방향변화를 한 새사람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다.

사르키노이스(sarkinois)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 너희는 아직 사르키코이(sarkikoi)로다.<sup>108)</sup>

이들은 현실적으로 노예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짓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며, 그것을 유지시키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동적 에네지이다.”<sup>109)</sup>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옛 자아에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윤리의 내적인 기초가 된다.”<sup>110)</sup>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pneumati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사르코스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sup>111)</sup>처럼 성령과 육체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과 죄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의 갈등의 삶이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육적인 삶을 극복하여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새로워지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데 이것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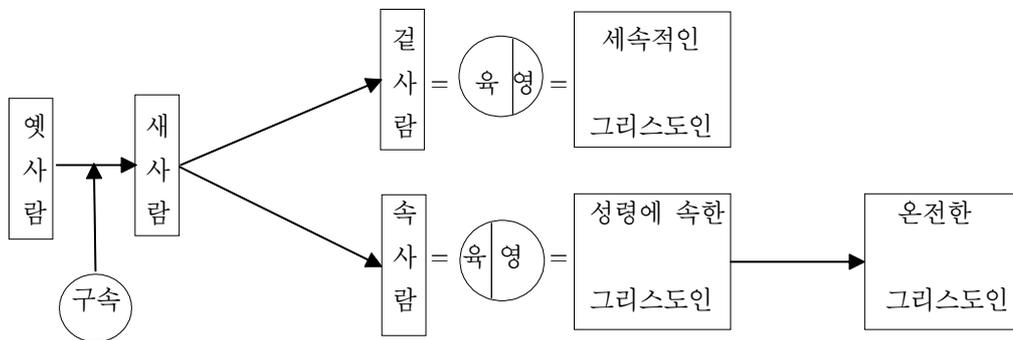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sup>112)</sup>

106) 『성경』, 「에베소서」4장 22절~24절.  
 107) 『성경』, 「골로새서」3장 9절~10절.  
 108) 『성경』, 「고린도전서」3장 1절~3절  
 109) 윤경숙,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윤리」, 『신앙과 학문』17, 2012, 162쪽.  
 110) 윤경숙, 같은 논문, 168쪽.  
 111) 『성경』, 「갈라디아서」5장 16절.

여기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으로의 옛사람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새사람이 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육과 영의 싸움의 장이다. 그래서 바울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혁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sup>113)</sup>

겉사람은 육신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며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결국 옛사람을 넘어 새사람으로 나아가고 겉사람을 달고 속사람을 키워 나가는<sup>114)</sup>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로 미래적 하나님나라의 현상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과정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공유성인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순간이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마땅히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sup>115)</sup>

#### 4. 결론을 대신해서

이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된 선한 창조 질서가 유교적 세계관에도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구속의 목표가 창조 당시의 본래 지위로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관점에서 인간을 스스로 인격적 완성자인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유교는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structure)와 방향(direction)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입각하면 방향이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인가학론은 창조 때 형성된 것이 죄로 인해 왜곡된 자력적 수양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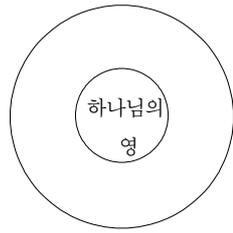
112) 『성경』, 「갈라디아서」2장 20절.

113) 『성경』, 「고린도후서」4장 16절~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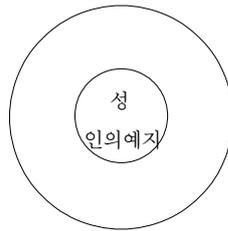
114) 차정석, 「속사람의 신학적 인간학과 대안적 인성 계발」, 『신약논단』18, 2011, 193쪽.

115) 후크만은 비공유성인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무제부소는 불가능하지만 에베소서 5장 1절을 전후로 해서 사랑과 용서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한다(안토니 A. 후크마 지음, 류호준 옮김, 『개혁주의 인간론』, 54~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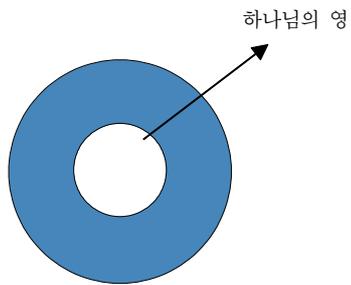
어쨌든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교와 기독교를 간략히 도식화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고, 인간의 보편성과 그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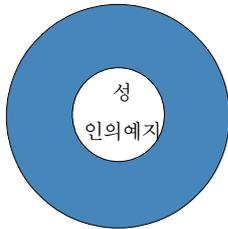
창세기의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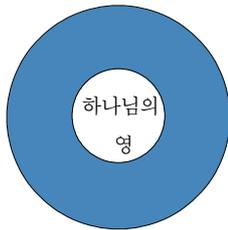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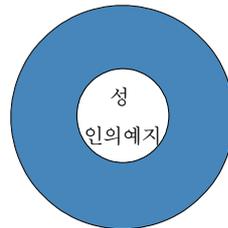
타락이후의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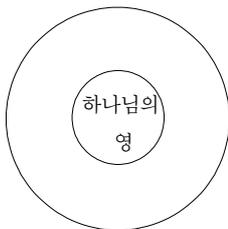
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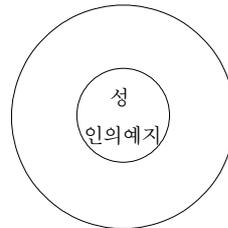
구속이후의 인간



범인



온전한 사람



성인

## [논평] 「인간다움에 대해서 -유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최태연(백석대)

성 교수에 따르면 유교와 기독교의 인간이해의 근본은 매우 유사하다. 왜냐하면 유교는 인간을 하늘과 통하는(天人感應) 존재로서 그 마음의 최고원리를 인(仁)으로 보고 사람을 사랑하며(愛) 공정하게 대하는(如) 것으로 이해한다. 기독교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그 근본 마음을 사랑과 의로 본다. 유교와 기독교 모두 현재의 인간이 이 본래의 마음에서 변질되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유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는 유교가 인간내재적인 ‘안으로부터의 깨달음’(enlightenment from within)으로 인(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비해, 기독교는 인간 ‘밖으로부터의 구원’(salvation from without)에서 본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있다.

성교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성 교수는 유교를 집대성한 송(宋)의 주희가 측은지심을 통해 모든 감정의 기저에는 인, 즉 역동적인 사랑의 이치가 놓여 있다고 보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의 무차별적 동정과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인간의 사랑의 원형이라고 보는 점에서 양자의 유사성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성교수는 인애로서의 헤세드에는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이나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도 성 교수는 유교의 인이 기독교의 헤세드나 아가페와 다른 근거를 주희의 이덕보원以德報怨(덕으로 원망을 갚는다)”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주희는 “이덕보원”을 사사로운 것이며 거짓이며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논평자로서는 이 점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교의 인과 기독교의 아가페는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인다. 양자가 어디까지 같으며 얼마나 다른지 좀더 분명하게 규명해 주시길 바란다.

2) 또한 유교는 인간내재적인 ‘안으로부터의 깨달음’(enlightenment from within)으로

인(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기독교는 인간 '밖으로부터의 구원' (salvation from without)에서 본래의 성품을 회복된다고 보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성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유사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기독교 내의 동방정교회의 신화(deification)나 감리교의 완전성화("entire sanctification)는 유교의 성인(聖人)됨과 내용적으로 유사하지 않은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3)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3. 기독교적 인간다움>의 부제가 -하나님나라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다움(인성)의 규정으로는 '하나님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유교와 기독교를 깊이있게 비교하는 연구를 제시한 성교수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 논평을 마친다.